

Melbourne City Walking Map 2

시티 센터 뒷골목 돌아보기 Laneways



MELBOURNE
VICTORIA AUSTRALIA
visitmelbourne.com/kr

'멜번에서 나만의 보물창고를 찾아라'



호주 멜번의 매력은 바로 뒷골목을 누비는 즐거움에 있다.

멜번 시티 센터에는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작은 뒷골목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다. 노천 카페들이 즐비하거나 그라피티들로 화려한 색채감을 뽐내기도 하고 특색있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숍이나 갤러리들도 숨어있다. 벽에 그림들이 걸려있고 신발들이 늘어져 있는 골목도 있다. 소문난 맛집과 펍, 흥겨운 바와 클럽들이 골목 사이 사이 숨어있기도 하다.



멜번 시티 워킹 두 번째 지도는 바로 특색있는 골목들을 따라 간다. 큰 길을 벗어나 골목 사이사이를 누비며 걷는 즐거움이 가득하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멜번의 매력들을 보물찾기 하듯 찾아다니다보면 어느새 흥겨운 멜번과 사랑에 빠진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4 센터 플레이스 & 아케이드 Centre Pl. & Arcade

디그레이브스와 함께 화려한 골목 문화를 선보이는 곳. 이곳에 들어서는 순간 당신은 바로 멜버니언이 된다. 항아리에 담긴 스프가 인상적인 스프 전문 스프 카페(Soup Cafe)에선 아시아인들이 아침 한 끼 나누기 부족함이 없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킨키 제린키(Kinki Gerlinky)에서의 패션 아이템 또한 눈여겨볼만 하다. 이곳의 카페들이 판매하는 브런치 메뉴는 어느 것이든 다양하고 훌륭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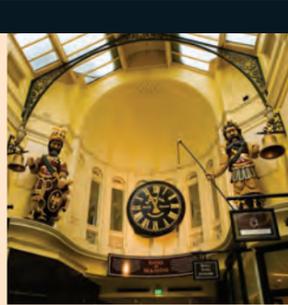
5 블록 플레이스 & 아케이드 The Block Arcade

높은 유리 돔 천장과 바닥의 모자이크 타일 무늬마저도 아름답다. 특색있고 고급스러운 숍들이 유명하다. 그중에서 인형가게 다펠(Dafel)을 놓치지 말 것. 무려 5대를 이어온 옛 여성들의 우아한 티 문화와 에티켓이 남아있는 카페 홉튼 티 룸스(Hopetoun Tea Rooms)도 이곳에 있다. 호주 전통 디자인인 래밍톤을 정성껏 낸다. 이외에 초콜릿 전문점과 작은 골목 안에 들어선 노천 카페 구경마저도 흥미롭다.



6 로얄 아케이드 Royal Arcade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아케이드. 1869년 개통한 이래 옛 건축 스타일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타로카드 점을 치는 카페부터 러시아 인형을 파는 숍까지 이색 아이템으로 가득하다. 사탕 만드는 시범을 보이는 수제 사탕가게 슈가(Suga), 체스 카드 등 각종 게임에 관한 모든 것 더 게임 숍(The Games Shop, #7), 향수와 화장품 가게 페인트 앤 파우더(Paint 'n Powder, #13) 멜번에서 가장 유명한 수제 초콜릿 숍이자 카페인 코코 블랙(Koko Black, #4)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꼭 방문해야 할 곳.



9 멜번 센트럴 Melbourne Central

시내 중심에 위치한 기차 역(Train Station)이면서 시티센터에서 가장 뜨거운 곳의 하나로 주목받는 곳이다. 멜번 센트럴은 옛 구조를 그대로 살린 독특한 양식 때문에 '멜번에서 가장 포토제닉한 건축물'로 유명하기도 하다. 최근 QV와 함께 떠오르는 쇼핑센터로, 300여개의 숍과 영화관, 바, 레스토랑 등 없는 게 없는 멀티 콤플렉스로 멜번 시민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www.melbournecentral.com.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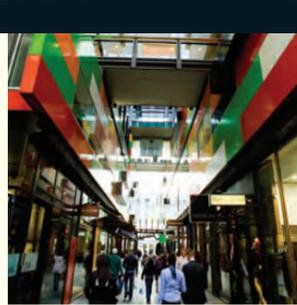


❖그라운드 층에 위치한 멘시스 플레이스(Menzies Place)는 아가자기한 상점과 레스토랑, 바가 즐비해 소파홀릭들의 쉼터가 되어 준다. 미투 카페(Mee to Cafe and Bar)의 라자나와 맥스 브레너(Max Brenner)의 초콜릿 풍류는 인기 메뉴! 문구 전문점 키키 케이(kikkiK(Shop G12, 그라운드 층), 호주 풋볼 등 스포츠 기념품 판매하는 수퍼스타 & 레전드(Superstars & Legends, 2층), 아일랜드 선술집 분위기의 펍 라이온 호텔(Lion Hotel, 3층), 멜번의 최대 서점(Borders) 등이 가볼만 하다.

10 큐브이 QV

멜번 패션의 중심 QV에는 호주 브랜드 숍은 물론 해외 디자이너들의 부티크가 즐비하다. 옛 퀸 빅토리아 여성 병원(Queen Victoria Women's Hospital)을 재건축한 첨단 빌딩의 디자인도 관광객의 눈길을 끈다. 특히 QV광장(QV Square)에 있는 초콜릿 카페 맥스 브레너(Max Brenner)는 20~30대 멜버니언들의 '만남의 광장'으로 통할만큼 인기 있다.

www.qv.com.au



그밖에 기억해둘만한 골목

*이 지도는 A3 용지에 인쇄하면 최적의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맛있는 골목-맛집들이 모인 골목 중에서 추가할만한 곳들은 다음과 같다.

이퀴터블 플레이스(Equitable Pl.)는 멜번의 아침을 여는 곳으로 유명하다. 퀸 St와 엘리자베스 St 사이에 위치한 골목으로 대표 골목 코스에서는 살짝 빠져있지만 그냥 건너 뛰면 섭섭한 골목이다. 특히 리틀 콜린스 St에서 시작하는 입구에 위치한 바게트 전문점 라보게타(La Bogue)는 갓 구운 바게트에 직접 고른 속재료를 샌드위치를 만들어준다.

버크 스트리트(스완스톤 & 스프링 St. 사이)에서 출발하는 골목들은 맛집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마이어스 플레이스(Meyers Pl.)에는 입구의 레인스 에지(Lanes Edge)를 비롯해 분위기가 있는 맛집들이 모여있다. 웨이터스 레스토랑(The Waiters Restaurant)도 각 책에 소개된 유명 맛집이다.

마켓 레인(Market Lane)에는 멜번에서 가장 유명한 한식당 코리아 팰리스를 비롯해 중식당 등의 맛집이 몰려있으며 **크로스리 스트리트(Crossley St.)**에도 퓨전 아시아 푸드와 독특한 인테리어로 유명한 진저보이(Ginger Boy) 등이 있다.

◆그라피티 골목

멜번 시티 센터에서 유명한 그라피티 골목을 꼽으려면 미사 골목으로 유명한 호시어 레인과 유니온 레인, ACDC 레인 등을 꼽을 수 있다(워킹 코스 13, 17, 18 참조). 북쪽에는 크로프트 엘리 Croft Al. 가 있다. 러셀 St와 익스비전 St. 사이, 리틀 버크에 입구를 두고 있는 페인스 플레이스(Paynes Pl.) 사이에 둔 골목이다. 섹션 8 바가 유명한 테터셀즈 레인과 화려한 그라피티를 만날 수 있는 골목이다.

◆음악이 흐르는 골목

멜번 시티의 유명한 재즈 골목을 꼽으려면 북쪽의 베넷츠 레인(Bennetts LA, 리틀 론즈 데일-러셀과 익스비전 St. 사이 위치)와 서쪽의 골디 플레이스(Goldie Place, 리틀 버크의 하드웨어 레인 부근 위치)의 파리 캣(Paris Cat)을 꼽을 수 있다. 남쪽 ACDC 레인의 체리 바는 록큰롤 라이브 공연으로 유명하다.

참고자료

시티 레인웨이즈 리플렛 지도, 웹사이트 www.thatsmelbourne.com.au

멜번 홀릭 가이드북 P23, 26~27, p29, p66~68

* 가격·시간 등 각종 정보는 2012년 10월 기준.

1 페더레이션 광장 Federation Square

파격적인 디자인만큼 역동적인 느낌의 시민광장이다. 2002년 10월 오픈한 이래로 시민들에게는 만남의 장소로, 여행자들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했다.

광장 가운데 멜번 비지터 센터에서 각종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곳을 기점으로 각종 투어들이 시작된다. 멜번 뒷골목 걷기여행도 마찬가지. 이 지도에 소개된 곳 이외의 골목들을 더 알고 싶다면 멜번 비지터 센터에서 레인웨이즈(Laneways) 포켓용 무료 지도를 얻는다.



2 캠프벨 아케이드 Campbell Arcade

플린더스 스트리트 스테이션의 지하 아케이드이다. 단순히 통로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성 넘치는 숍과 카페 등이 위치해 있다. 골목 예술에 대한 다양한 전시물을 소개하는 스틱키(Sticky), 패션 의류 & 액세서리 숍 캣츠 미우(The Cats Meow), 서브젝트 투 체인지(Subject to Change) 등이 눈길을 끈다. 주중 오전 6시30분부터 3시간만 문을 여는 간단한 아침식사 메뉴로 유명한 스트리트 카페도 있다.



3 디그레이브스 스트리트 Degraives Street

멜번 골목 문화를 대표하는 거리. 테이블이 늘어선 거리를 비롯해 레스토랑, 카페, 숍 어느 하나 모자란 곳이 없다. 그중에서도 컵 케이크로 유명하며 주인이 한국인인 리틀 컵케이크(Little Cupcakes), 고전적인 디자인의 다이어리와 수첩 등이 돋보이는 수제 문구류점 일 파피로(Il Papiro) 등이 인기. 디그레이브스 에스프레소 바나 저널 카페 등도 많은 이들이 줄서서 메뉴를 찾는 유명한 맛집이다.



7 지피오 & 지피오 레인 GPO & GPO Lane

버크 St와 엘리자베스 St 코너에 위치한 GPO는 본래 우체국(1864년 건립)이었던 건물을 개조해 2004년 문을 연 쇼핑 몰이다. 건축 디자인은 아치형의 클래식한 스타일을 고수했지만, 내부에는 도회적인 분위기가 흐른다. 벨린다(Belinda), 웨인 쿠퍼(Wayne Cooper), 아키라(Akira), 지그소(Jigsaw) 등 중고가 패션 숍을 둘러보다 GPO 레인에 위치한 카페에 앉아 인력한 휴식을 취하면 쇼핑 후 만족감이 배가 된다.



8 하드웨어 레인 Hardware Lane

리틀 버크 St.를 사이에 두고 양 옆으로 이어진 골목에는 노천 카페와 식당들이 가득 들어서 있다. 특히 라이브 음악이 함께 하는 골목으로 유명하다. 이곳은 점심과 저녁이 주를 이루며 무엇보다도 음식값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점도 매력적. 메인 메뉴들이 \$18~25정도. 메인 메뉴에 와인이나 맥주를 곁들여 늦은 밤까지 수다를 떨 수 있다는 점도 인기다. 투어 중에는 잠시 둘러보며 맘에 드는 곳을 찍어두자. 특히 노천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하고 싶다면 예약은 필수.



11 테터셀즈 레인 Tattersalls Lane

QV 건너편, 론즈데일 St에서 시작하는 테터셀즈 레인은 무엇보다도 멜번에서도 가장 소문난 컨테이너 바 섹션 8(Section 8)이 있기 때문이다. 주차장의 무한 변신을 보라. 죽어있는 골목 한 귀퉁이가 근사한 그라피티와 음악이 흐르는 바로 살아있는 공간이 되었다. 낮에는 차 한잔에 그라피티를 감상하고 밤에는 어느 곳보다도 청춘이 뜨겁게 불타는 곳으로 변신한다.



골목 여행시 알아두면 좋을 정보

◆멜번 시티센터에서 무료 와이파이 WiFi 접속이 가능한 공공 장소.



- 페더레이션 광장
- 빅토리아 주립 도서관 @스완스톤 스트리트
- 시티 도서관 @ 플린더스 레인
- 멜번 센트럴 @ 스완스톤
- 기타 브랜드 커피숍, 카페, 레스토랑 등에서는 업장별로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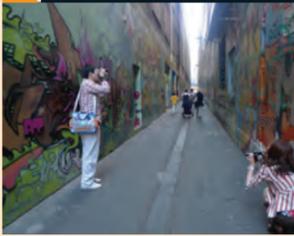
◆멜번 골목은 골목 입구 벽에 붙어있는 표지판(사진 참조)에서 골목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입구에 들어가면서 사진기로 미리 표지판을 찍어두면 나중에 정리할 때 골목들을 판별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12 **코즈웨이** The Causeway



노천 카페들이 늘어난 멜번에서 손꼽는 맛있는 골목 중의 하나다. 특히 아침 및 점심 식사로 유명한 골목들이다. 리틀 콜린스 스트리트에서 시작되는 입구에 위치한 로렌트(Laurent)는 멜번에서 유명한 초콜릿 전문점이자 베이커리, 카페이다. 이 골목의 메뉴는 국적도 다양하여 여행자들이 이용하기에 좋다.

13 **유니온 레인** Union Lane



좁은 골목 양쪽으로 화려하게 펼쳐지는 그래피티는 그 자체로 멋진 화보같다. 원근감 깊은 거리 속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흥미롭다. 골목에서 사진을 찍을 때 특히 맑은 날 낮에는 채도 차이가 크니 플래시 등을 적절히 활용하면 좋다. 오히려 낮보다는 해지기 전 후가 빛이 낮게 깔리며 사진이 더 잘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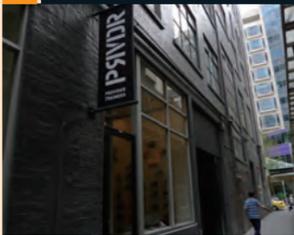
14 **하위 플레이스** Howey Pl. **프레스그레이브** Presgrave Pl. **캐피톨** Capitol



하위에서는 독특한 아이템의 인테리어 숍과 패션 액세서리 숍 등이 불만하다.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색감이 돋보이는 키친 웨어 숍인 비스 오스트렐리아(Bison Australia)와 독특한 디자인의 가방 전문 숍 브리멜로우(Brimelows) 등이 눈길을 끈다. 프레스그레이브에서는 카페 푸쉬카(Pushka)의 벽에 걸린 거리 미술 관람도 놓치지 말 것. 아무 것도 없을 것 같은 골목이 몇 점의 그림들로 명소가 됐다. 하위 골목 끝부분에 위치한 캐피톨 아케이드를 통과하여 나오면 콜린스 스트리트와 만난다. 캐피톨 아케이드 끝부분에 연결된 1932년에 지어진 맨체스터 유니티 빌딩의 엘리베이터 구경도 놓치지 말 것.



15 **맨체스터 레인** Manchester Lane



맨체스터 레인에는 갤러리와 디자이너 숍, 독특한 패션 아이템을 다루는 숍 등이 위치해 있다. 그중에서도 프로바이더 트레이너스(Provider Trainers)에서는 나이키, 뉴 발란스, 반스 등의 한정판 운동화를 전시하고 판매하고 있다. 이 골목에 위치한 맨체스터 레인 바 & 레스토랑도 라이브 음악과 맛있는 음식으로 유명한 곳이다.

16 **스캇트 앨리** Scott Alley



맨체스터 레인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는 이곳에는 멜번의 아름다움을 사진으로 담아 유명한 사진작가 매트 어윈(Matt Irwin)의 갤러리가 있다. 사진 감상 및 구입 모두 가능. 멜번의 매력과 특징을 잘 살린 작품을 주로 선보이며 판권서, 책 등이 자주 소개되는 작가다. 이 골목의 부딪고, 패션숍들도 패션의 관심있는 이라면 주목할 만큼 이색적인 아이템을 자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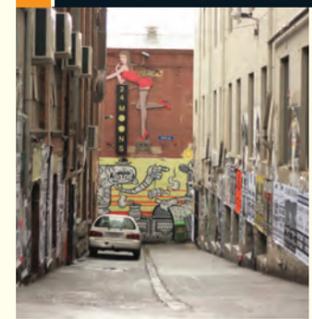


17 **미사 거리 호시어 레인** Hosier Lane



플린더스 스트리트에서 스완스톤과 러셀 스트리트 사이에 위치한 작은 골목. 무엇보다도 화려한 그래피티로 유명하지만 한국인들에게는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의 촬영 배경지로 널리 알려졌다. 멜번에서도 소문난 레스토랑으로 꼽히는 모비다가 이 골목 입구(플린더스 스트리트 쪽)에 위치해 있다. 그래피티는 일년에 서너차례 바뀌며 분위기를 달리한다.

18 **ACDC 레인 & 덕보드 플레이스** ACDC LA. & Duckboard PL.



미사 골목 이상의 화려한 그래피티와 그림, 하늘에 걸려있는 신발짝들, 벽 한쪽을 장식하는 포스터 등으로 유명하다. 두 개의 골목이 플린더스 레인을 중심으로 이어져 있다. ACDC 레인 중간에 위치한 체리 바(Cherry Bar)는 자유분방한 인테리어와 함께 라이브로 록큰롤을 공연하는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체리 바 외에도 골목에는 다양한 바들이 있다. 이곳에서는 때로 골목 전체가 거대한 록큰롤 공연장으로 변신하는 축제가 열리기도 하다.

19 **플린더스 레인** Flinders Lane



플린더스 st와 콜린스st. 사이에 위치한 플린더스 레인은 차 한 대가 일반통행으로 다닐 수 있는 작은 거리로 멜번 골목의 지존이다. 이곳은 빅토리아 주정부의 장기적인 지원덕에 로컬 디자이너 숍이 집결한 예술 골목으로 주목받아 왔다. 개성 넘치는 숍과 갤러리들이 다수 포진해 있고 덩어로 소문난 맛집, 카페, 클럽들이 있어 낮고 밤이 모두 즐거운 골목이다.

*신구 빈티지 패션 아이템을 고루 구입할 수 있는 패션숍 레트로 스타(Retro Star, 37 콜린스 & 플린더스 레인 코너, 니콜라스 빌딩 1층), 같은 빌딩 2층의 일본식 텍스타일을 전시 판매하는 기모노 하우스(Kimono House) 등을 돌아볼 수 있으며 플린더스 레인의 18번지 크리스틴(Christine)에서는 명품 한정판을 구경하고 구입할 수 있다. 크래프트 빅토리아(Craft Victoria, #31)는 아티스트들의 실험정신이 묻어나는 수공예품 갤러리 및 판매장이다. 호주 원주민 미술을 재해석한 작품들을 전시하는 플린더스 레인 갤러리(Flinders Lane Gallery, #137), 혁신적인 인디 아티스트들의 공연과 미술 작품을 두루 감상하는 포티파이브 다운스테어스(Fortyfive Downstairs, #45), 호주 현대를 대표하는 25명의 주요 예술가들의 사진, 설치 예술, 그림, 조각 등의 작품을 접할 수 있는 아크 원 갤러리(Arc One Gallery, #45) 등이 있다. 맛집으로는 디그레이브스가 시작하는 골목 2층에 위치한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방의 가정식 요리를 만날 수 있는 저널 캔틴(Journal Canteen, #253), 맨체스터 레인이 시작하는 곳에 위치한 흥겨운 재즈, 펑크락 공연 등과 만찬을 즐길 수 있는 맨체스터 레인(Manchester Lane) 등을 기억하자.